

이슈 리포트

10

2003년 9월 세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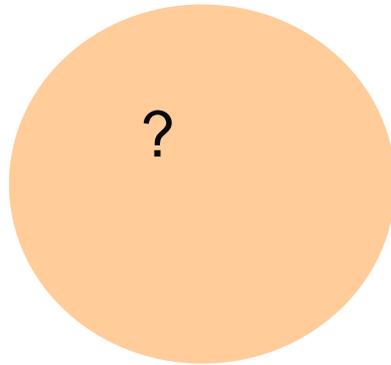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죽음의 그림자
- 노동자 세상:	국민의 눈
- 정자동 6층에서:	산별노조 2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세상돋보기



☞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를 반대하며 한국의 이경해씨의 자결은 미국 등 다국적 기업의 농산물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미국의 곡물회사인 '카길'이 WTO 농산물 협상의 배후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에서는 죽음만 이야기할 뿐 딸의 결혼식을 앞둔 한 아버지이자 농민 운동가가 왜 죽을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고 이경해씨를 죽게 한 카길사를 고발한다. 다음의 글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박태건 기자가 쓴 글을 편집한 것이다.

고 이경해씨의 명복을 빕니다.

카길, 한국 수입곡물시장의 60% 장악

미국은 농민 숫자가 전체 미국인구의 2%인 2백만호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 곡물 및 사료시장의 8할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농업국이다. "미국이 독하게 마음 먹고 향후 20년간 식량수출을 금지하면 미국 이외의 국가는 모조리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량파워'는 실로 엄청나다.

이같은 미국 식량파워를 대표하는 말형이 다른아닌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길이다.

세계 주요국에 1백여개의 자회사와 1천여개 공장, 9만7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카길은 밀, 쌀, 옥수수, 콩, 식용유, 오렌지 농축액, 커피, 육류, 맥도널드 햄버거용 통닭, 통조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농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1998년 인터콘티넨탈 인수를 계기로 국내 수입곡물시장의 6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말 그대로 '한국의 명줄'인 먹거리를 쥐고 있는 저승사자인 셈이다.

(중략)

카길의 최대강점은 각국 정부보다 먼저 각국의 농업작황을 파악할 정도로 기민한 정보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인공위성과 자회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흉작이 들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을 비롯한 전세의 해당곡물을 매점매석한 뒤 가격을 폭등시키는 수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있다. 곡물작황을 놓고 머니게임을 벌이고 있는 시카고 선물시장 등에 개입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카길은 인공위성을 통해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작황을 매일 세 차례씩 체크하고 있을 정도로 정보력이 대단해, 미국의 CIA(중앙정보국)조차 카길에서 정보를 알아볼 정도다.

카길은 또한 전직 관료 등 로비스트를 고용해 미국정부를 매수하거나 외국독재정권과 결탁해 검은 정치자금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 1976년 한국의 박정희정권 및 미국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박동선 커넥션'의 막후 곡물상도 카길로 알려지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물결의 배후에도 카길이 존재하고 있다. 1993년 전세계 농민의 분노를 산 미국측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안의 경우 미국 농무차관 출신의 카길 고위임원 엠스태시가 작성한 초안이 그대로 미국정부안으로 걸장만 바뀌어 제출돼,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10일 고 이경해씨를 죽음으로 내몬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 농업협상에도 카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마디로 '카길의 세일즈맨'에 불과하다.

지난 8월26일 미국의 앤 베너먼 농무장관은 두 킨린 중국 농업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콩수입 제한에는 근거가 없다"며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노골적 압력을 가했다. 이는 올 들어 7월까지 콩 수입량이 1천2백30만톤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1백47% 급증한 중국이 미국산 콩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카길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9월초 중국을 방문한 존 스노우 미 재무장관도 중국정부에 마찬가지로 압력을 가했다.

카길은 북한 시장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카길은 "만성 식량부족국인 북한은 미래의 중

요한 거래처"라며 그동안 구상무역 등의 형태로 북한시장에 타고들기 위해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벌여왔다.

세계의 저승사자, 카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카길의 범지구적 영향력은 한층 거대해질 전망이다. 환경파괴-산업화 등에 의한 식량부족의 결과, 곡물가 폭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곡물시장은 1996년부터 폭등단계에 접어들었다.

한 예로 정확한 정보수집력과 분석력으로 명성높은 워싱턴 월드워치 연구소의 레스트 브라운 소장은 21세기의 식량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1950년부터 1984년까지 34년 사이에 세계의 곡물수확량은 매년 3%씩 늘어 1인당 40% 가량 공급량이 늘었다. 그러나 1984년이후 수확 신장률이 1%로 줄어들어 인구증가를 2%에 못미치고 있다. 그 결과 1994년도의 1인당 공급량은 1984년보다 도리어 10% 줄어들었다.

생산량 정체는 원인은 경작지 감소, 수자원 고갈, 한계에 봉착한 화학비료 효율 등이다. 이는 미국, 중국, 인도 등 3대 생산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제약이다.

세계 경작지 면적은 1950년부터 1981년 사이에 24% 늘어났으나, 그후에는 공장용지와 도시시설로 전용되면서 줄어들고 있다. 또 지하수의 과잉개발로 미국 남서부와 중국 북부, 인도 편잡의 대곡창지대는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아울러 토양 침식, 오존층 파괴, 온난화 같은 환경파괴도 식량 생산력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한 예로 현재 세계 경작지에서는 연간 2백40억톤의 표토가 침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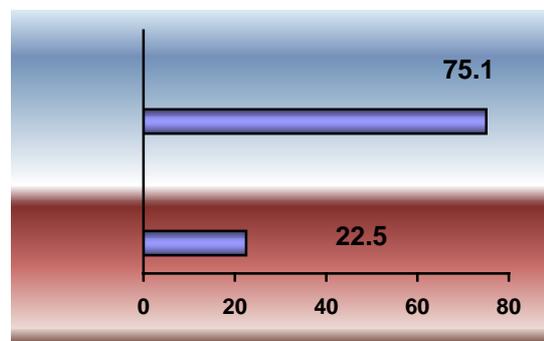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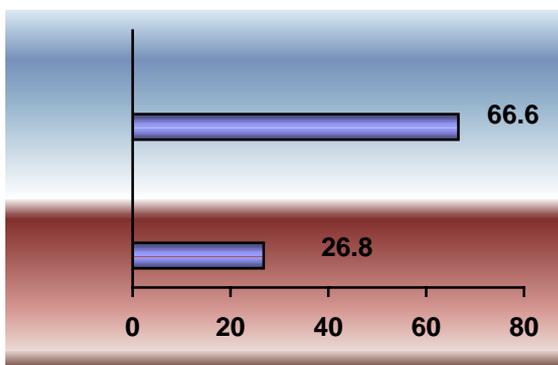
무엇보다 큰 변수는 급속한 공업화와 소득향상을 실현중인 중국의 12억 인구가 세계의 식량수급에 미칠 영향이다. 소득이 늘수록 곡물에서 육류로 소비패턴이 바뀐다. 그러면 엄청난 곡물이 사료로 소비된다. 중국은 국내에서 증산한다 할지라도 농지면적, 수자원, 비료 효과라는 3대 장벽에 부딪쳐 결국은 거대한 식량수입국이 될 것이다. 쌀, 밀, 기타 곡물류 순서로 세계의 식량가격을 중국이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운 소장의 예언은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경해씨의 죽음은 이같은 거대 골리앗 카길과의 '외로운 싸움' 끝에 발생한 '타살'인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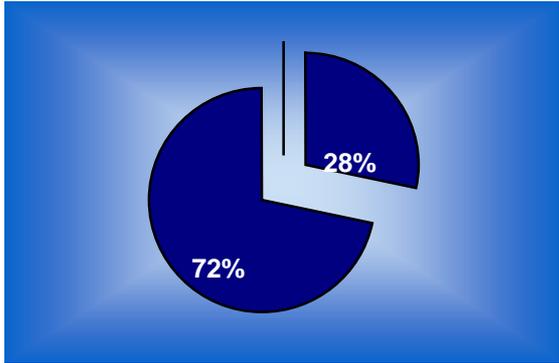
노동자 세상

최근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위한 자료를 발표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의 제도화를 관철시키겠다고 하였다. 노동계에서는 적극 반대의사를 밝혔고, 경영계에서는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반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우연히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대체로 노사관계 로드맵이 주요 항목들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설문결과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료에 대한 객관성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단 국민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이기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우리 노동계를 보는 국민들의 냉정한 시각이며, 거울에 비쳐진 우리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투쟁 성패는 결국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 가름 된다고 볼 때 향후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시사를 주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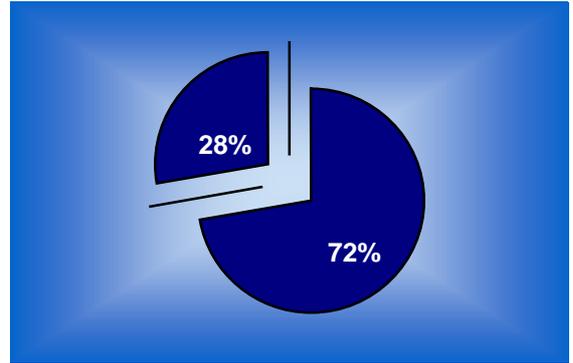
:
 : 2003 5 1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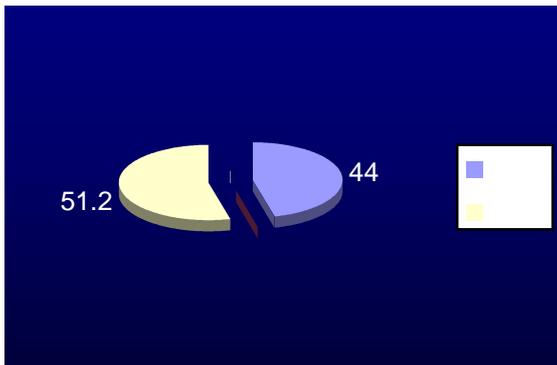
<우리 나라 노사관계는 어떠한가?> <노동조합과 사용자중 어느편의 힘이 더 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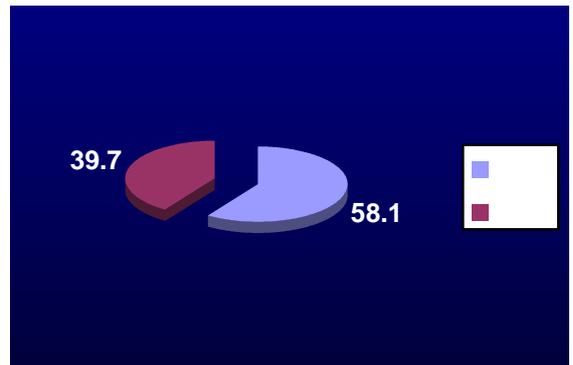
<바람직한 노사정책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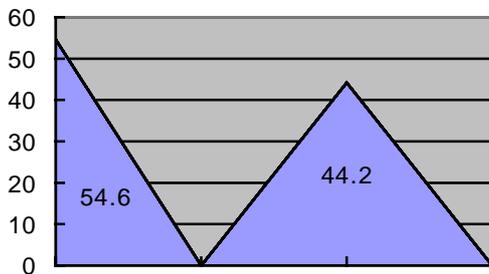
<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정치영향력에 대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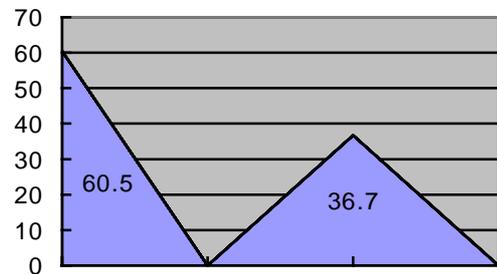
< 노동조합, 민주적 운영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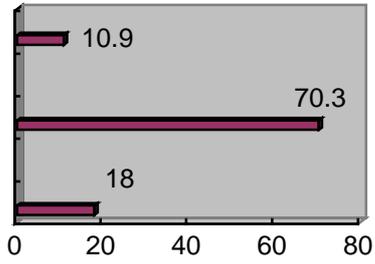
< 노동운동, 국가발전에 도움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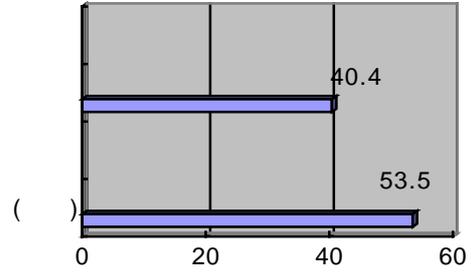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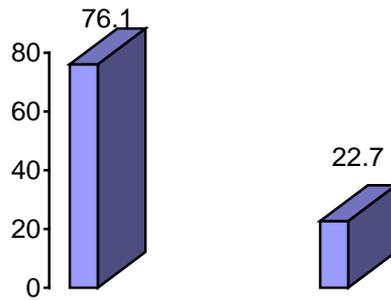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해 >



< 공공부문 노동자 집단행동 >



< 바람직한 노동조합 활동 방식 >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없는 것)>

정자동



6층에서

“ 가? “ -

산별 노조에 대한 내용이 지난 9호에 이어 계속 게재된다. 마찬가지로 금속노조의 산별 소책자를 참고하여 편집 게재하였다.

1. 산별노조에서 교섭과 협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산별노조에서는 교섭안을 마련하고 교섭단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세워 집행하는 일들을 모두 중앙조직에 합니다. 교섭권과 체결권도 산별노조에 있습니다.

교섭 진행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기준선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보충교섭을 통해 사업장 조건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교섭단위는 노조에서 결정한 교섭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협약 체계는 크게 산별중앙협약과 사업장 협약의 이중 체계로 구성됩니다. 업종별 교섭이나 지부별 교섭의 결과 업종별 협약과 지부 협약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지만 대체로 사업장 협약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중앙교섭에서는 사업장 차원에서 다루기 힘든 요구나 전체 산업의 최저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2. 산별노조로 가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닌가요?

대기업은 낮추고 중소 사업장은 높여서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산별노조체제가 되면 우선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회복지의 제도화가 가능하여 실업보험이나 노령연금, 의료보험, 학비, 주택 등 복지의 혜택이 노동자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갑니다.

최저임금제도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임금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나 금속산업 노동자들이 실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지요.

특히 최저임금제는 법정 최저임금 뿐 아니라 산별중앙교섭을 통하여 산업과 업종 차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에 따라 임금체계를 산업차원에서 통일하여 사업장을 옮겨도 임금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합니다. 이처럼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하향평준화 방식이 아니라 하층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대폭 높여 나감으로써 전체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임금을 제외한 기업별 특성에 따른 상여금과 부가급 등은 사업장 보충협약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가 손해 본다'는 말은 기업주들이 산별노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3. 일본이 산별노조 건설에 실패했다는데... 이로 인해 현재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2차 대전 종전 직후 일본은 산별노조 운동을 벌이다가 미국의 개입과 내부분열로 일차적인 좌절을 하고 1950년 대 중반부터 기업별 노조체제로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에 1955년부터 '춘투'라는 대기업 중심의 시기집중 투쟁에 온 힘을 기울였으나 이는 임금 격차 해소와 임금체계의 통일과는 거리가 먼 대기업 노조의 경제적 임금투쟁이었습니다.

또한 춘투에 집중하며 기업별 체계를 산별로 전환하려는 조직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습니 다. 따라서 '춘투'의 힘은 경기 후퇴와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산별 노조 건설 실패 원인의 하나로 일본 대기업노조들의 소극적인 태도, 심지어는 '배반'이 지적 됩니다.

'기업별 노조'가 정착되면서 임금인상과 해고 반대 등의 기업별 수준의 투쟁만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임금제'와 '기업복지 후생제도'를 기둥으로 하는 일본적 고용관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당연히 기업주에 의해 배풀어진 시혜적·온정적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종업원을 기업에 묶어두기 위한 자본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본에 의해 언제라도 부정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전격적으로 경영진에 포섭되는 '일본식 경영'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사회복지의 후퇴하고 전체적 임금수준은 계속 하락합니다. '일본은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는 말도 일본이 기업별 노조이기에 그렇게 된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4.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지회의 예산이 적어 사업하기가 어렵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기업별노조 시절에 비해 지회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단위노조의 예산으로 집행되던 사업들이 본조와 지부의 사업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쓰임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회의 예산은 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지회 고유의 사업에만 사용되므로 예산이 적어 사업하지 못하는 예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는 평등의 원칙에 맞게 본조, 지부, 지회의 예산을 통일시켜 사업비로 쓰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은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학교를 할 경우 예전 같으면 단위노조별로 각각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2중, 3중으로 지출되는 사업비를 지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본조가 강사배치, 수련회 등 모든 내용을 관장합니다. 물론 지출은 본조 사업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간의 동지애도 높여내고, 시간의 낭비도 없애며, 예산도 줄여내니 1석3조입니다.(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만

화

방

